

제과기술의 토양, 하이박 경연대회 제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서울하인즈가 하인즈 빵·과자경연대회(이하 하이박)를 계속 후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중단 위기에 놓였던 국내 유일의 현장 실기 경연대회가 예정대로 10월 28일부터 4일간 한국제과고등학교에서 열리게 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하이박은 식빵부문, 조리빵부문, 페이스트리부분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실기 경연대회로, 특히 금년부터는 공예 부문을 폐지한 대신 실용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 지난 대회 때와 사뭇 달라진 점이다.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하이박은 사실 올초만 하더라도 심각한 외환위기로 인해 행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베이커리 업계의 기술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회 개최를 결정한 서울하인즈의 결단도 치하할 일이지만, 우수 기술인의 산실인 하이박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점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어렵게 마련한 하이박 경연대회를 성대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과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회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96년 제2회 대회때의 부진한 참여도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역 제과인들의 경우 전체 회원중에서 1.4%인 38명만이 대회에 출전, 전국적으로 가장 부진한 참여율을 나타냈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경연대회에 정작 주인공인 제과인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면 기술향상은 물론, 업계의 미래마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해도 배우들이 외면하는 연극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대한제과협회는 내년 1월과 2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월드 빠띠세리'와 유로빵 기간 중 개최되는 '세계 제빵 월드컵'에 대표선수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외경연 참여를 통한 기술발전이 업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해외경연 참여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국내 기술발전이 그 기본적인 토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토양이란 서울국제빵·과자전이나 하이박 같은 경연대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내 장사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어렵게 마련된 하이박에 제과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우리 업계의 미래는 기술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